

4/23/17

설교 제목: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 (천사와 비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히브리서 1: 1-14

- (히 1: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 (히 1:2)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절관주** 막 12:7
- (히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히 1:4)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 (히 1: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절관주** 시 2:7, 시 89:26
- (히 1:6) 또 그가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절관주** 롬 8:29, 벰전 3:22
- (히 1: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절관주** 시 104:4
- (히 1: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절관주** 시 45:6
- (히 1:9)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 (히 1:10)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 (히 1: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 (히 1:12)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히 1:13)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히 1:14)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지난 주까지 읊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의 원 제목은 '프로스 에브라이우스(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원 제목대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크리스찬이 된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어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작 연대는 성전과 제사장을 언급하면서 현재 시제로 처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AD 70 년 예루
살렘 성전이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기 전인 AD
67 년경쯤에 씌여지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 성도들은 동족인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위대한
선지자로 보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당시는 오죽했겠습니까?

이렇게 동족의 핍박이 심해지자 일부 유대인 성도들은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갔으며 남아있던
유대인 성도들도 되돌아 가야 하나 남아 있어야 하나 많은 갈등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신같은 존재로 여겼던 천사, 또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무엘, 엘리야, 모세 같은 선지자들과
비교 설명합니다.

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우월하니 갈등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 장인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말하면서 천사와 비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사를 신과 같이 여겼습니다.

한 예로 요한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천사가 나타나 천상의 광경과 천상의 메세지 즉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알려 주자 황홀감에 빠져 그것들을 보고 듣게 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실수를 범하자 천사가 자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일깨워 줍니다.

(계 22:6)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리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계 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계 22:8)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계 22:9)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열 두 제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런 제자도 이런 실수를 범했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설명하는데 있어 첫 장을 천사와 비교하는데 기꺼이 할애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 1: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 1:2 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합니다.

‘옛적에’란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란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의 구약 시대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여러가지 내용과 방법들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천사의 모습으로, 혹은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였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내 보이시기도 한 것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타나심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말은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를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부른 것은 신약 시대가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내리시는 마지막 시대임을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약 시대에 주신 이 계시를 넘어선 어떤 추가 계시도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신약 계시가 구약 계시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계시에서는 상징적으로 또는 예언적으로 주어졌던 계시의 내용이 신약 계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나타나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 주신 모든 것 즉 성육신, 그의 가르침과 행하심,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 등등의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에 대해 일곱 가지 증거를 냅니다.

(히 1:2 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 1: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그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체 즉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3.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는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들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 1: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5.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정케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받게 하셨습니다.

(마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마 26: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 (마 26:27)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 (마 26: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6.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그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막 16:19)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행 7:55)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행 7: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7.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시고 목표입니다.

(골 1: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 1: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타락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타락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으로부터 구속하여 세우실 이 세상을 죄없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상속해 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직접 비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위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히 1:4)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 1: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히 1:6)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맏아들'이라는 말은 '첫 번째로 나신 자' '먼저 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던,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사의 위상에 대해 언급합니다.

(히 1: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언급합니다.

(히 1: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히 1:9)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히 1:10)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히 1: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히 1:12)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 1:13)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히 1:14)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나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감히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천사는 뛰어나고 놀라운 존재이지만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리는 종이요 나아가 구원 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종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신지라 영원 전부터 계셔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온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본문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누구와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종국에 승리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며 경배하시기 바랍니다.